

오늘의 기사관

오늘의 행사
(5일) ▲방송위원회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연속토론회=오후 7시 광주영상예술센터 2층 세미나실, 고광연 광주·전남 미디어활동연대 대표가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
(6일) ▲제 14회 전남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개막식 오전 10시30분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22개 시·군 자원봉사자 등 522명 참여 예정. 5개 시, 3개 군, 4개 민간단체가 12개 부스를 마련, 봉사 활동 사진 전시. 이강현 불토에서 21 사무총장이 '아름다운 사회와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특강. 43명에게 장관·도시사 표창.
▲2006 전파이용 활성화 토론회=오후 1시 여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2회 해설있는 화요음악회

오전 10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수우체국, 무선국 보유 시설자·지역 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전과정책 추진방향 및 무선국 검사 업무 설명.
▲목포 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식 및 목포문화산업발전 포럼=개관식 오후 1시30분 목포시 석현동 문화산업지원센터. 포럼 오후 2시30분 벤처지원센터.
최영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전남 문화산업·IT의 현황과 발전 전망', 김기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콘텐츠연구단 책임연구원이 '한국 영화속 영상특수효과 기술', 이윤선 목포대 도서관화연구교수 교수가 '전남 문화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김형서 대불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전남 문화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해 발표.
▲영산강 하천용수 활용 국제 워크숍=오후 2

시 전남도청 왕인실, C.Ray 미국 하와이대 교수가 '미국에서의 RBF(River Bank Filtration·강변여과) 공법 활용 현황', 김승현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RBF 공법 최적 적용 방안', 최희철 광주과기원 교수는 '토양 배수층 여과 공법 적용방안', 김준하 광주과기원 교수가 '지표수·지하수 연계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
▲1천포기 사랑의 김장 담궐주기 및 김장 김치 전달식=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유덕동 칠성마을.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독거 노인·영세민 등에게 김장 김치 전달.
▲광주시립교향악단 제 2회 해설있는 화요음악회=5일(화) 오전 10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 25회 CBS 성가 대합창제=5일(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화요예술무대 '로페카 앙상블 정기연주회'=5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 아버지학당 제 11회 정기연주회 '사랑 나눔 자선음악회'=6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내빛소리 정기연주회 '겨레여 겨레여 한겨레여'=6일(수)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증권박물관 특별기획전=개막식 5일(화) 오전 1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한국서예협회 진도지회 회원작품 전시회=7일까지 진도군 농협군지부 3층 전시실.
▲송죽회전=14일까지 광주 일곡도서관 갤러리. 동림미술연구원 회원들의 한국화 작품전.
▲박일정전=12월31일까지 고흥도화원미술관. 도판화(陶板畵·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 작품 전시.
▲중국 영남 현대미술 작품전=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선동민전=7일까지 광주 향토문화센터 3층 오월문화관.

뉴스퀴즈

41.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아시안게임이 지난 2일 새벽(한국시간)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45개국 1만2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오는 15일까지 39개 종목에 424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입니다. 한국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4년 테헤란 이후 32년만에 중동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개최 도시는 어디일까요.

- ① 도하 ② 바그다드 ③ 두바이 ④ 이스탄불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밤에도 공잔줄 알아?

아주 옛날에 공자 마을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때! 공자 부인이 빨랫감을 안고 나타났다.
한참 수다를 떨고 있던 아낙네들 가운데 하나가 공자의 부인에게 말했다.
"아, 그대 부인께서 요즘 무슨 재미로 사세요? 사람 사는 재미는 애 낳고, 키우고, 알콩달콩 싸워가면서 사는 것인데~ 공자님하고는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군요?"
공자의 부인은 모른 채하며 계속 빨래만 했다. 곁에 있던 아낙네들도 한 마디씩 거들었다.
"덕이 그렇게 높으면 뭘 하나, 학문이 그렇게 높으면 뭘 하나, 제자가 그렇게 많으면 뭘 하나, 사람 사는 재미는, 재미는 그저, 히히.
그러거나 말거나 빨래를 마친 공자의 부인은 빨래를 챙겨 돌아서며 아낙네들에게 한마디 했다.
"아~! 이 여편네들아! 밤에도 공잔 줄 알아?"

▲누나의 비밀

악동이(5)는 자신의 누나랑 같이 목욕탕에 갔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같이 목욕한 뒤 나왔다.
그런데 밖에는 누나를 좋아하는 철이 형이 있었다.
철이 형 : 어 악동이 구나!
악동이 : 누나 먼저 집에 가! 근데 왜 철이 형?
철이 형 : 아니 그냥...
악동이 : 근데 철이 형은 왜 여탕엔 안 들어가?
철이 형 : 나처럼 다 큰사람은 남탕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악동이 : ㅎㅎ 여탕에 들어가면 누나의 비밀도 알 수 있는데. (철수 갑자기 귀가 솔깃)
철이 형 : 악동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악동이 : 그래!
철이 형 : 근데, 너희 누나의 비밀은 뭐야?
악동이 : 가르쳐 줄까?
우리 누나는--고추가 없어!



▲거기서! <디시인사이드>

Table with 10 columns and 10 rows of numbers, likely a lottery or bingo grid.

제15회 光日盃 光日盃

행운의 승리 총보(1~204)
白 이강민 5단 (PGA생명)
黑 유병수 5단 (포스코)

이 판은 결승전출이 걸린 중요한 승부인데다가 포스코의 목표를 과연 이강민 5단이 막아낼 것인가로 관심이 집중된 한판이었다. 결과는 이강민 5단의 4집반승, 천신만고 끝에 대역전승을 거두고 대망의 결승전출과 포스코의 싸늘이를 막았다.
이 판은 유병수 5단에게 훨씬 기회가 많았던 한판이었다. 초반의 공격 실책에도 불구하고 백이 느슨해진 틈을 타 좌상귀를 흑 83까지 차지했을 때만 해도 흑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한게임 바둑리그 PO 진출

경기 한게임이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한게임은 지난 2일~3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 제일화재와 준플레이오프에서 3-2, 뒤집기 승부를 연출하며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한게임은 대회 첫날 2연패를 당했으나, 이틀째 김성룡, 이영구, 은소진이 내리 3연승을 거둬서 PO 진출권을 따냈다.
김성룡은 이세돌 9단을 290수 만에 백 반집으로 잡고 역전 드라마의 서막을 열었다. 이 승리로 삼금 7천만원의 확보한 한게임은 9~10일 정규리그 2위 월드메르디앙과 플레이오프를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90>

Can you imagine ~?
자네, ~상상할 수 있는가?
A:I am so envious of Tommy and Cindy. Can you imagine being able to sail around the world?
B:I would love to be able to some day. But not every one is able to take a two month leave like that.
A:I'm going to put it on my wish lists.
B:Me too.
A:나는 Tommy와 Cindy가 정말 부러워. 자네, 상상할 수 있겠어? 전 세계를 항해하는 걸 말야.
B:전 언젠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것처럼 한 달 동안의 휴가를 가질 수는 없겠지요.
A:난 희망 목록에 적어 둘 작정이야.
B:저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envious : ~을 부러워하는, 질투심이 강한.
Can you imagine~? : 자네, ~할 수 있겠는가?
* imagine 뒤에는 동명사 목적어가 온다.
- Can you imagine walking on the moon?
자네 달 위에서 걸어 다니는 걸 상상할 수 있는가?

오하이오 니혼고 <790>

禁句(きんく)までは、言いませんけどね
금지시 하는 말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A:前の日本の千円札には、伊藤博文の肖像(しょうぞう)が透(す)かし繪(え)だったんですよ。
B:そうですね。私は伊藤博文は大嫌(だいきら)いなんですけど。
A:伊藤博文は、日本の最初の總理大臣(そうりだいじん)ですよ。あつ、そうか。ここでは、伊藤博文(いとうひろふみ)は禁句(きんく)でしたわ。
B:禁句(きんく)までは、言いませんけどね。
A:이전의 일본 천엔 짜리 지폐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초상이 은화(隱書)였어요.
B:그래요? 나는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싫어하는데...
A: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최초의 총리대신이에요. 아, 그런가! 여기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금지시하는 말이었군요?
B:금지시 하는 말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透(す)かし繪(え) : 종이를 빛에 비출 때 보이는 무늬, 글자
大嫌(だいきら)い : 아주 싫어하다
總理大臣(そうりだいじん) : 총리대신 수상

니하오 쵡구워 <508>

冤怪
탓하다, 나무라다
A:我女人对您太抱歉了。请您不要见怪。
B:没事。没关系。
C:没关系。没关系。
D:没关系。没关系。
E:没关系。没关系。
F:没关系。没关系。
G:没关系。没关系。
H:没关系。没关系。
I:没关系。没关系。
J:没关系。没关系。
K:没关系。没关系。
L:没关系。没关系。
M:没关系。没关系。
N:没关系。没关系。
O:没关系。没关系。
P:没关系。没关系。
Q:没关系。没关系。
R:没关系。没关系。
S:没关系。没关系。
T:没关系。没关系。
U:没关系。没关系。
V:没关系。没关系。
W:没关系。没关系。
X:没关系。没关系。
Y:没关系。没关系。
Z:没关系。没关系。

한자 이야기 <408>

鴛鴦之契 (원앙지계)
원앙 원, 원앙 앙, 어조사 지, 약속 계
원앙지계(鴛鴦之契)는 원앙새의 약속(約束)으로, 부부 금슬이 좋은 것을 비유한다. 원(鴛)은 수컷이고, 앙(鴦)은 암컷이다.
전국시대 송(송)나라 강왕(康王)의 사인(舍人)인 한빙(韓憑)은 아름다운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지만, 강왕이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다. 얼마 안되어 한빙은 자살하였고, 아내도 높은 누대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아내는 남편과 합창(合葬)해 주길 바란다는 유서(遺書)를 남겼지만, 강왕은 화가 나서 허락하지 않고, 두 사람의 묘를 서로 마주보게 떨어져서 만들었다. 왕은 "너희들 부부는 계속 사랑하고 있는듯하지만, 만일 묘가 합해진다면 나도 막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하루밤 사이에 커다란 가래나무가 두 묘 곁에서 자라 나더니 열을 만나 한이름이 될 만큼 굵어지고, 몸체가 서로를 향해 굽더니 땅속에서는 뿌리가 서로 엉켜붙고 땅위에서는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혔다. 또 암수 원앙 한 쌍이 각각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그 자리에서 구슬피 울어, 듣는 이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 이를 보고 송나라 사람들은 원앙이 한빙 부부의 영혼이라고 했고, 그 나무를 상사수(相思樹)라고 불렀다. (搜神記)